이안의 Media In Buddha ⑱ 〈구미호뎐〉 시리즈와 〈천년호〉



▶한줄 요약
이젠 K-콘텐츠로 자리잡은 '구미호'의 이야기는 신상옥 감독의 1969년도 작품 〈천년호〉가 시초다. 신상옥 감독은 이 영화의 모티브를 〈삼국유사〉 기이편 '진성여대왕과 거타지'에서 가져왔다.

K-콘텐츠 '구미호 이야기' 기원은 '삼국유사'



TVN 드라마 〈구미호뎐〉(사진 왼쪽)과 신상옥 감독의 〈천년호〉 포스터(사진 오른쪽).

낮에는 뙤약볕으로, 밤에는 열대야로 땀 식지 않고, 잠 못 들어 뒤척이는 여름철. 대개 전통적으로 이 계절이면 납량특집이라는 이름으로 공포영화가 극장에서고 TV에서고 더위를 식히는 방편이 되곤 했다.

그런데 공공장소든 가정집이든 에어컨이며 냉장고, 선풍기 따위 잘 갖춰진 전자제품이 더위 쫓도록 잘 갖춰져서 그런지 요즘 여름에는 극장가에서 공포영화가 그다지 맥을 못 추고, 여름이 공포영화의 계절이라던 시절을 옛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만들고 있다.

그 대신 드라마 〈구미호뎐 1938〉이 여우귀신 이야기의 계보를 이으며 시청자들에게 우리 문화의 전설과 신화 속에 등장했던 귀신과 요괴들을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각색해 새로운 재미를 만들어냈다.

전편인 〈구미호뎐〉(2020)은 21세기에 환생해 도시에 정착한 구미호와 구미호의 정체를 밝히려는 방송국 프로듀서인 인간의 판타지 로맨스 서사 안에서 구미호, 불가살이, 어둑시니, 여우누이, 우렁각시 등 토착신과 토종귀신들이 경합하는 액션 멜로드라마로 시청자에게 캐릭터를 성공적으로 각인시켰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여우귀신 이야기에서 대체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남성을 유혹하는 요물로 재현되곤 했던 구미호가 남성(이연 역, 이동욱)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런 젠더적 전환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의 전환을 반영하는 것이리라.

'전설의 고향'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괴담에서 여성은 희생자로 등장한다. 유교문화권 속에서 가부장적 전통은 계모, 정절, 대 잇기, 가문 등의 억압 형태로 수많은 여성을 희생시켰다. 아무런 죄 없이 희생당한 여성들의 한이 귀신의 형태로 등장하면서 이 불쌍한 귀신들의 한풀이가 괴기담의 주된 소재였다.

서양 판타스틱 영화에서는 공포스런 괴물의 근원이 〈드라큘라〉나, 〈뱀파이어와의 인터뷰〉처럼 자기 안에 숨어있는 욕망이나 〈지킬박사와 하이드〉처럼 인간 내부의 원초적 폭력성에 있다면 한국식 괴기담에서는 외부의 폭력이 평범하거나 유달리 선한 사람을 귀신으로 만든다. 〈장화홍련전〉(감독 이유섭, 1972)이 그렇고 〈천년호〉(감독 신상옥, 1969)의 여화가 그렇다. 그러므로 서양 판타스틱 영화의 괴물은 퇴치되어야 하며 〈오멘〉, 〈엑소시스트〉에서 보듯 퇴치된 듯해도 끈질기게 되살아나지만, 한국식 괴기담의 귀신은 원한이 풀리면 고이 물러난다. 〈천년호〉의 요괴도 시신을 수습해서 제사를 지내주고 혼을 달래주자 잠잠해진다.

대체로 서양 판타스틱 영화에서 등장하는 '괴물'은 동성애, 유색 인종, 여성, 반기독교, 계급의 코드로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의 견고한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한국식 괴기담에 등장하는 '귀신'은 오히려 기존의 질서를 지키고 유지하려다 죽임을 당하고, 죽어서도 그 질서를 지키고자 한다. 충신이거나 열녀이거나 효녀였던 이 귀신들은 그러므로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에 대한 억압의 코드이기도 하다.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이나 일탈은 귀신의 형상을 빌려서까지도 억압해야 할 만큼 가부장적 유교문화는 견고한 것이었다.

이제 호주제가 철폐되고, 성문화가 개방적이 되고, 전업주부보다 맞벌이를 해야 대접받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머리 풀고 흐느끼다 한풀이 끝나면 물러가는 귀신의 세계는 더 이상 동시대적이지 않아서일까, 현실의 억압이 예전보다 더 전방위적이 되면서 여귀보다 억울한 원귀들이 더 많아서일까?

〈구미호뎐〉 시리즈에서 21세기의 여우는 이연과 이랑 형제는 더 이상 무섭지도, 불쌍하지도 않은 액션 판타지 로맨스 캐릭터로 변신하는데 성공했고, 이제 사람들은 여우귀신을 요물이라며 꺼려하지 않는다.

여우 요괴를 전승담에서 발견해 공포 영화의 주인공으로 만든 감독으로는 신상옥 감독의 〈천년호〉가 한국영화사에서는 고전 중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다. 신라 진성여왕(김혜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김원랑(신영균)을 유혹하려고 괴한을 보내 원랑의 부인 여화(김지수)를 해치려 하자 아기를 안고 도망치던 여화가 아기가 죽고 겁탈 당할 위기에 호수에 뛰어들었는데 살아나면서 시작되는 〈천년호〉는 로맨스와 공포, 원한과 복수, 팜므파탈과 요괴, 토종 귀신과 비유교적 이념에 대한 불교적 해결을 바탕으로 하는 에로틱 판타지 액션 드라마다. 〈천년호〉는 개봉 당시 제3회 시체스환상공포영화제에서 황금감독상을 받은 뛰어난 작품이기도 하다.

〈구미호뎐 1938〉 전작 이어 인기몰이
시대 변화 맞춰 '액션 멜로' 장르 정착
구미호, 불가살이 등 토속 奇談 녹여내
신상옥의 '천년호'가 구미호 콘텐츠 시작
기원은 〈삼국유사〉 '진성여왕과 거타지'
일연 편찬 〈삼국유사〉, K-콘텐츠 寶庫

호수에서 구해낸 여화를 집으로 데려 온 원랑에게 한 노인이 호수의 천년 묵은 여우에 대해 설명하며 여화에게 여우의 혼이 들렸을지도 모른다고 말하지만 원랑은 믿지 않는다. 깨어난 여화는 여우 귀신에 씌여 낮에는 온전한 정신으로 지내다가 밤이 되면 자신을 죽이려던 괴한들도 처치하고, 궁궐에까지 침입해 여왕을 죽이려 한다. 결국 여왕을 지키려던 원랑이 아내에게 여우의 혼이 씌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스님을 찾아가 여화 안의 요물을 없애 달라고 부탁하면서 왕실 치정 복수극은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여우도 죽고, 여화도 죽고, 여왕은 권력을 잃게 되는 〈천년호〉 서사는 그야말로 여성에게 가혹한 유교의 시대가 도래하는 전주곡과도 같은 역사 호러다. 이 천년호 이야기는 〈삼국유사〉 기이 제2편에 실린 '진성여대왕과 거타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진성여왕 막내아들 양패가 당나라에 사신으로 갈 때 거타지도 궁사로 뽑혀 따라가게 됐는데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어 점을 치니 섬 안에 신령한 못이 있어 여기서 제사를 지내야 풍랑이 멎는다고 하여, 그 못에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니 못물이 높이 솟아올랐다. 그날 밤 양패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활을 잘 쏘는 사람 하나만 이 섬에 남겨 두고 떠나면 순풍을 얻으리라"고 하자 제비를 뽑으니 거타지가 남게 되었다.

홀로 남은 거타지에게 홀연히 한 노인이 못 가운데서 나와 자기는 서해의 신인데 매일 해 뜰 때마다 하늘에서 한 중이 내려와 다라니를 외며 못을 세 바퀴 돌면 자기와 가족들이 모두 물 위에 둥둥 뜨게 되고, 그 때마다 그 중이 자손들의 간을 하나씩 빼 먹어 지금은 자기 아내와 딸만 남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중을 활로 쏘아 달라고 부탁했다. 다음날 노인의 말대로 거타지가 활을 쏘아 중을 맞히니, 중이 곧 늙은 여우로 변해 땅에 떨어져 죽었고, 노인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용에게 거타지와 사신 일행이 타고 가는 배를 뒤쫓아가 그 배를 호위하여 무사히 당나라에 도착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직접 읽어본 사람은 많지 않아도 누구나 알고 있는 역사책 가운데 〈삼국유사〉는 아주 특별한 책이다. 방대한 역사책을, 그것도 자신이 살던 시대가 아니라 그 이전 시대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진 것 뿐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이야기까지 모아 단 한 사람이 책으로 엮어냈다는 것은 그 책에 담긴 이야기들만큼이나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사건이다.

보각국사 일연이 고려시대까지 전승되어오던 삼국시대의 여러 역사와 설화를 담아 1281~83년 쓴 '삼국유사'는 한국 고대사부터 지리 · 문학 · 종교 · 언어 · 민속 · 사상 · 미술 · 고고학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귀한 문화 자원이다.

같은 고려 시대인 1145년, 인종의 명으로 국가 사업으로 편찬된 〈삼국사기〉가 편찬 책임자 김부식을 비롯해 보조 역할을 담당한 관료가 8명, 행정사무를 전담한 지원 인력이 또 2명이나 붙어서 총 11명이 작업한 것과 비교해도 놀랍기 이를데 없다.

관료인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는 곰이 마늘과 쑥만 먹고 마침내 인간이 됐다는 단군신화가 상식적으로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든 기적을 제외하고 역사기록에 충실하려 한다는 명분 때문에 기록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에서는 배제한 널리 알려진 신화적, 설화적 이야기를 두루 수록하면서 심지어 내용의 출처를 소상히 밝히고 있다. 그 출처가 된 책들이 지금은 남아 있지 않기에 그런 기록 문화가 있었다는 사실 또한 〈삼국유사〉의 업적이 되는 것이다.

〈삼국유사〉에서 당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던 거타지 이야기에서 토착신과 불교의 경합, 여성도 왕위에 올랐던 신라가 당나라와 교류하며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당대에는 '여대왕'으로 칭송받던 진성여왕을 풍속을 망치는 당대의 '음녀'로 비하하는 시대적 왜곡 등이 반영되어 천년호 이야기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각 시대의 변화와 필요에 따라 같은 캐릭터에게 다른 의미와 평가를 부여하며 새로워지고, 그 캐릭터들은 이야기 속에서 윤회를 거듭한다. 이제 여우 귀신은 토착신을 잡아먹는 불교 승려도 아니고, 여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왕권을 위협하는 요물도 아니고, 오히려 자신이 지키지 못한 여성을 구하고 또 구하려는 순애보의 남성 캐릭터로 바뀌었다. 아마도 일연 스님은 자신이 기록한 이야기들이 이토록 오래오래 이어질 줄 알고 있지 않으셨을까?

〈영화평론가〉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여주환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산수유열매,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복령, 옥수수수염, 천문동, 맥문동, 감초뿌리줄기, 뽕나무뿌리껍질, 창출뿌리줄기, 작약, 황기, 칡뿌리,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골담초환	**산수유환**	**어성초환**
재료명: 우슬, 황칠, 두충, 가시오가피, 울금, 참당귀, 쇠비름, 독활, 마가목열매, 개다래열매,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측백나무, 자소엽, 서목태, 복분자, 삼백초, 참당귀,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솔잎, 녹차잎,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 · 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